



São Jorge Castle Archeological Site Plaza
/João Luís Carrilho da Graça Arquitectos

Small but Heavenly
UrbanHow > "Genius Loci" or Branding?
SUMMER PLACE

312
Aug 2010

9 772092 5 19005
ISSN 2092-5190



The neo-gothic Mariendom cathedral of Linz, on which planning commenced in 1855 and which was consecrated in 1924, is the largest church in Austria. Domplatz square was itself a muddle in comparison and might be described as almost "unfinished", given that the original idea to free up the entire quadrangle between the streets called Stifter-, Hafner-, Baumbach- and Herrenstrasse, by removing all buildings and creating a park, was not implemented. Instead various interventions such as privately created front gardens and the construction of garages led to a heterogeneous situation, which was unsatisfact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urban planning and was to be resolved by means of a competition. The latter was also to include the construction of a hotel and underground car park as well as the revitalisation of two existing baroque buildings on the southwest side of the square.

One of the important fundamental ideas behind the project was to create a new urban planning situation. Domplatz square was freed of various developments, and the cross-grid arrangement of paving hinders the emergence of a dominant directionality so as to favour a generous, neutral surface that permits a rich variety of uses. In the area of the existing buildings by Herrengasse a compact, distinct ensemble with mini-squares and alleys was created through forging links with the surrounding streets and by

means of the solitary positioning of the new hotel; concentrating the now urbanised Domplatz at the interface to the heart of the city, a place at the square.

Both baroque houses were returned to original, revitalised and improved. They now house long-stay apartments, a restaurant and seminar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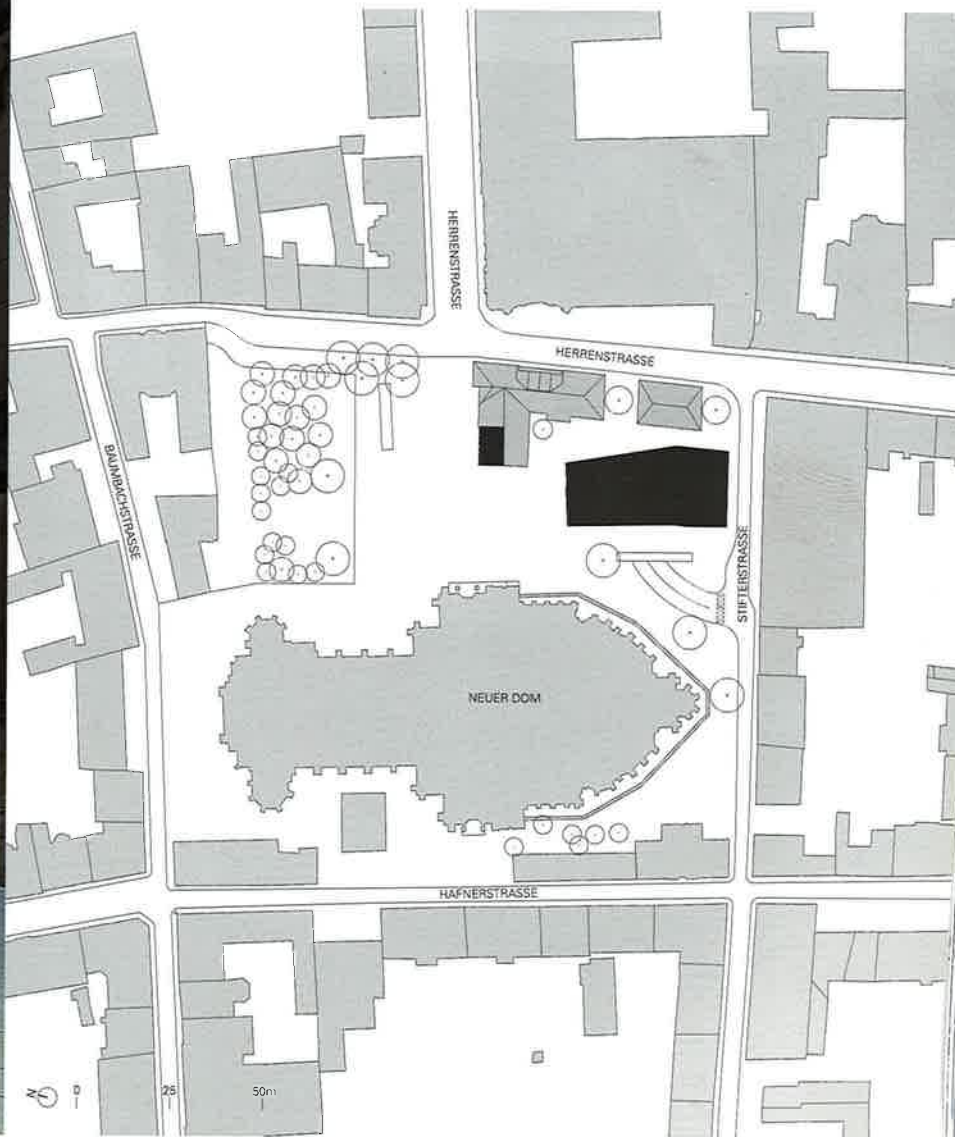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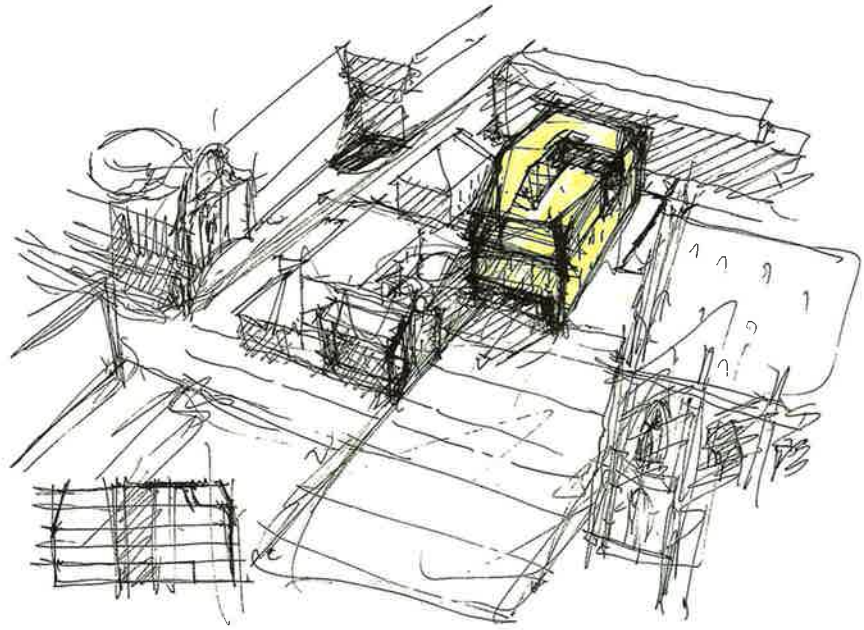
The new hotel is a confident, sculptural solitaire building, on the one hand reacting to the arrangement and vertical extent of neighbouring buildings and, on the other, offering a response to the simultaneously delicate and dominant structure of the cathedral. The building "floats" above the square, its mass dissolving into a concrete framework, whilst its morphology, with folds in the facade and a profile becoming more slender towards the top, connects with the form of the cathedral chancel and underlines the small component ensemble effect achieved together with the existing baroque buildings.

A funnel-shaped atrium, lit from above, cuts through the hotel building, thus ruling out narrow, dingy corridors and repeating the theme of transparency and openness in the interior. The actual rooms are spacious and airy, with full-height glass walls offering a sense of close involvement with the cathedral and immediate surroundings. Hohensinn Architekt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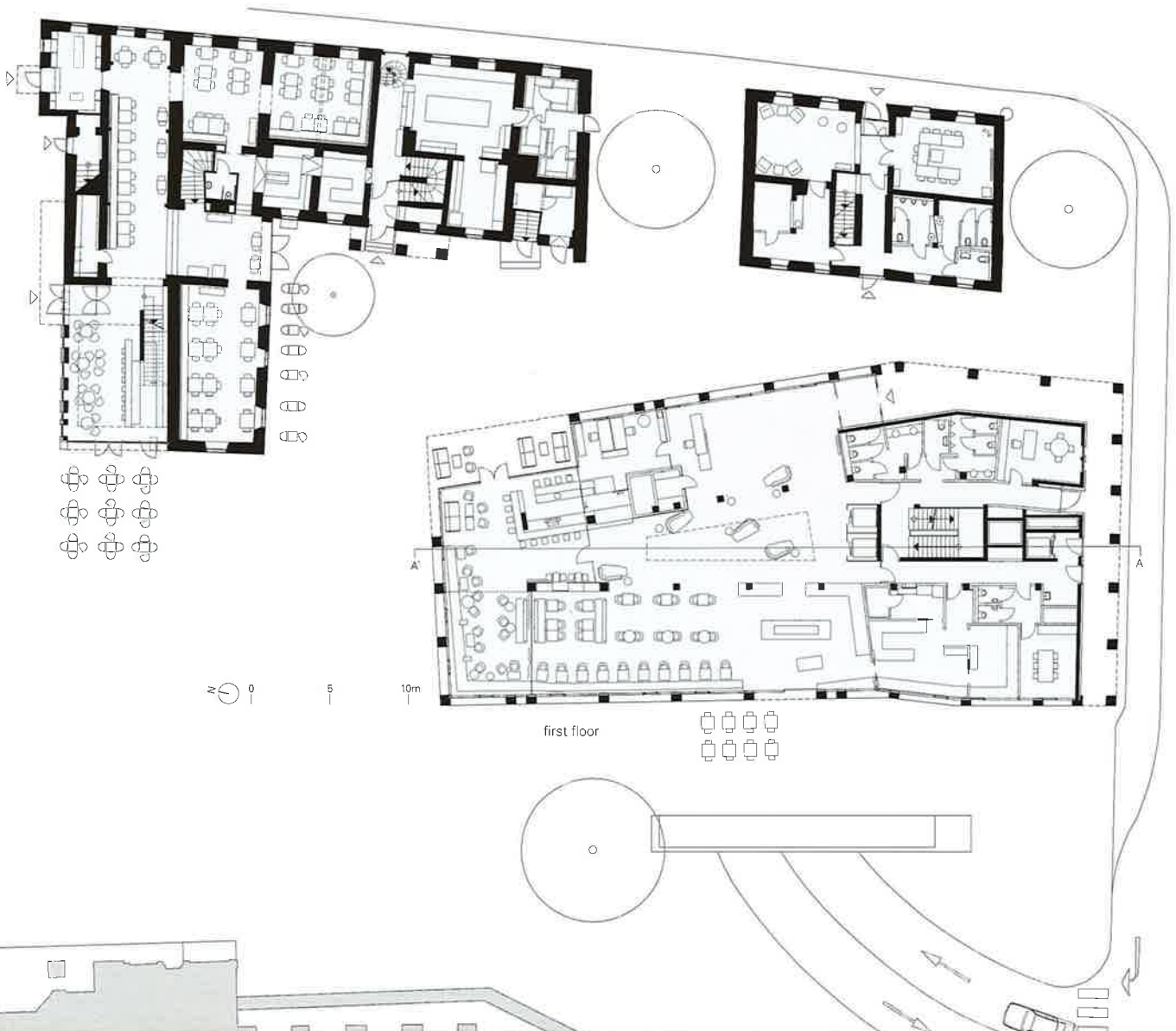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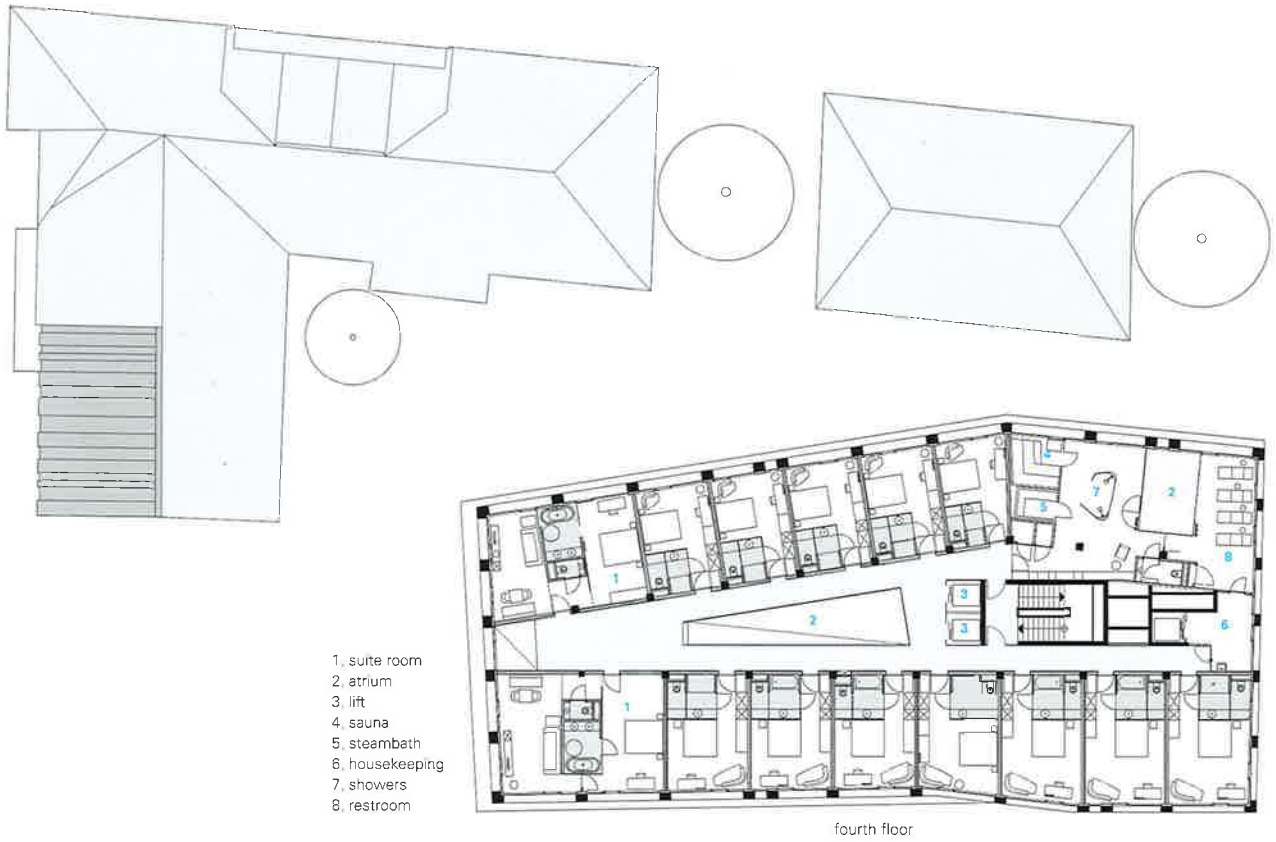
Hotel Domplatz in Linz

Hohensinn Architekt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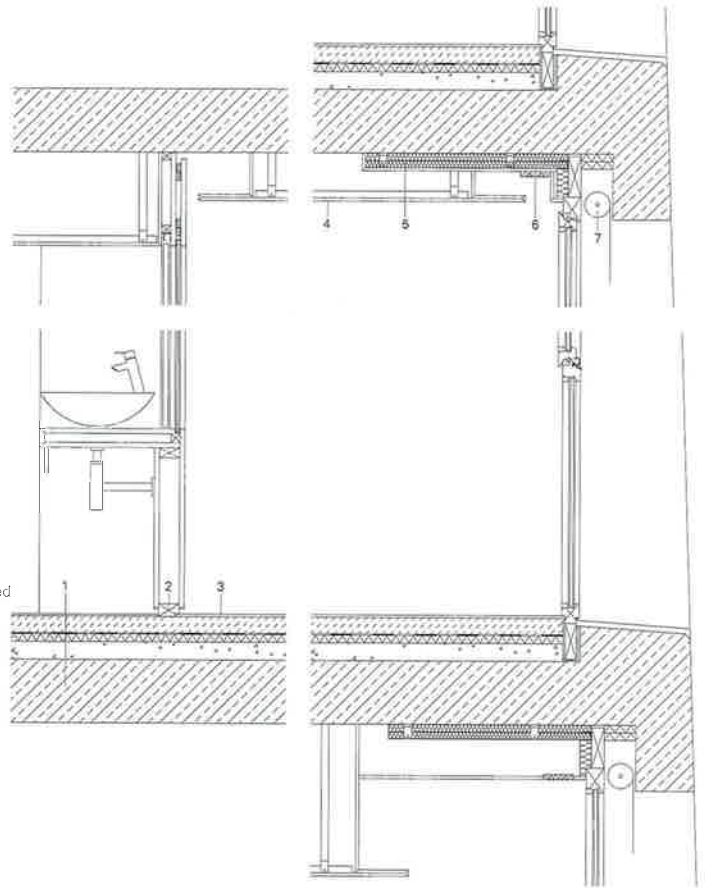








Architect : Hohensinn Architektur
 Client : Stiftung St. Severin, Linz
 Location : 4200 Linz, Herrenstrasse, Stifterstrasse, Austria
 Gross floor area : 4,191m²
 Gross volume : 14,871m³
 Design : 2006
 Construction period : 2007.04.~2009.04.
 Cost : EUR 12M
 Photograph : ©Paul Ott fotografiert



- 1. mosaic tiles, seal, heating screed, film, tops, slab
- 2. staffel, impregnated and glued white painted
- 3. glued parquet
- 4. suspended deck
- 5. insulation
- 6. curtain rail
- 7. sunscre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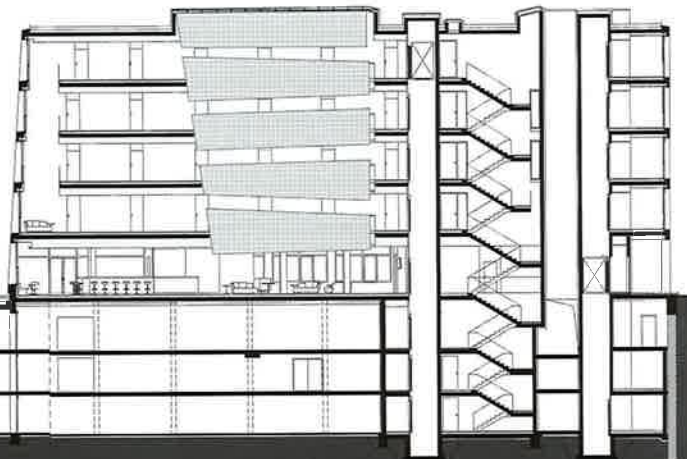
린츠 돔플라츠 호텔

오스트리아 린츠에 있는 성마리 대성당은 1855년 건설 계획을 세워 1924년에 축성한 신 고딕풍의 건축물로,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성당 앞 돔플라츠 광장은 슈티프테에르, 하우프네아르, 바움바흐, 헤아헨슈트라흐 등의 이름이 붙은 거리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건물을 없애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광장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이 채 완성되지 않아서인지 광장은 아직까지 뒤죽박죽으로 보이며 거의 '미완성'에 가까운 상태이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조성한 앞마당과 차고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광장의 전경이 이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부채질했다. 이는 도시 계획의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경쟁에는 광장 남서부에 있는 두 동의 바로크식 건물 복원 작업과 호텔, 지하 주차장 건설 작업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도시 계획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돔플라츠 광장은 다양한 개발을 시도해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격자 무늬 표장 도로는 공간이 넉넉하고 중간색 바닥 면이 평평해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 쇼핑가로 유명한 헤아헨슈트라흐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외딴 곳에 신축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주변 거리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작은 광장과 골목들이 집약적이면서도 분명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도시화된 돔플라츠 호텔이 광장의 한 곳, 도심부에서 점점이 되고 있는 형상이다.

두 동의 바로크식 건물을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복원하여 이 건물들이 거리에 활력을 주며 노후 시설도 많이 개선되었다. 지금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아파트와 식당,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신축 호텔은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마치 솔리테르(외알박이 보석) 조각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호텔의 한 면은 이웃 건물들과 수직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한 면은 섬세하면서도 권위적인 성향이 강한 건축물인 성당에 대응하고 있다. 언뜻 호텔은 광장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건물 전체가 콘크리트 골조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형태를 살펴보면, 정면은 반으로 접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측면은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호텔 정면은 성당 내 성단소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바로크식 건물들과도 매우 잘 어울려 보인다.

깔때기 모양의 아트리움을 통해 빛이 위쪽에서 내리쬐며, 호텔 건물 사이로 길을 내고 있다. 이렇게 들어온 빛이 좀더 밝고 어두운 복도의 채광을 조절하고, 실내의 투명함과 개방성이라는 이번 프로젝트의 테마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실제 객실 내부는 매우 널찍하고 통풍이 잘 되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벽을 통해 성당은 물론 인접한 주변 환경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 호엔신 아키텍투어



section A - A'

